

## 뉴스와 쟁점 | News &amp; Issue

## 2013년 멕시코 교육개혁을 둘러싼 에피소드

임수진

## 에피소드 1: ‘큰선생님’(La Maestra)의 몰락

아무래도 엘바 에스더 고르디요(Elba Esther Gordillo)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수십 년 동안 본인의 이름보다는 ‘큰선생님’이라는 별칭으로 통했고, 최근 몇 년간 멕시코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가진 여성으로 평가되던 사람이다. 그도 그러할 것이, 1989년 이후 23년 동안 16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멕시코 전국교원노조(SNTE: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Educación)의 총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도혁명당(PRI)이 집권하던 시절이나 국민행동당(PAN)이 집권하던 시절이나 상관없이 정치권으로부터 언제까지라도 영원할 것 같은 러브콜과 보호를 받아왔다. 제도혁명당 시절에는 상·하원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당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5년 마리아노 팔라시오스 알코세르(Mariano Palacios Alcocer)의 당 대표 재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다가 제도혁명당과 결별한 뒤, 신동맹(Nueva Alianza)라는 당을 창당하였다. 2006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대선후보를 냈으면서도 국민행동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엘바 에스더 고르디요의 연설모습  
(이미지 출처: <http://www.democracyandsociety.com/>)

1945년 멕시코시티에서 출생했으나 곧 모친을 따라 치아파스로 이주했다. 그 곳에서 열다섯 나이에 교사가 될 때에 비한다면, 그리고 스무살 나이에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남편을 병으로 잃고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하던 그 때에 비하면, 평범한 인간의 개인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다이내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평소 다소 사치스럽게 비춰지는 엘바의 행적은 여러 차례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로 보도했지만, 23년간이나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인 멕시코 전국교원노조위원장을 지낸 그녀가, 여전히 100%에 가까운 노조원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sup>1)</sup> 적어도 2013년 2월 26일 밤, 멕시코 주 톨루카 국제공항에서 연방경찰에게 체포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체포 당일 검찰에 의해 밝혀진 엘바의 행적은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도 체포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3년 동안 전국

1) 형식적이긴 하나 전국교원노조는 6년마다 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2년 선거에서 97%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당시 수락 연설에서 엘바는 전국교원노조의 선거야말로 투명성의 가장 극명한 예이고,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투명하면서도 막강한 노조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직원노조의 돈을 유용하고, 그 돈을 세탁해 착복했다는 것인데, 검찰에 의해 밝혀진 액수가 자그마치 26억 페소다. 미화로 환산하자면, 2억 달러가 넘는 돈이다. 도무지 26억 페소가 어느 정도 큰돈인지, 천문학적 숫자 앞에서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에게 검찰은 항목을 조목조목 나열해가며 그동안 ‘큰선생님’이라 불리던 엘바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엘바의 월급이 32,000페소(약 2,500달러)이었는데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22번에 걸쳐 미국 샌디에고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에서 쇼핑하고 결제한 카드 금액이 자그마치 3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최고급 휴양지에 본인 명의로 된 두 채의 주택과 딸과 손자 명의로 된 주택도 여러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기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발견된 계좌에서 총 1억2천만 유로가 확인되었다. 물론 이 모든 자금의 출처는 전국교원노조 계좌로 확인되었다.

매달 전국교원노조로부터 1,500만 페소(약 120만 달러)를 개인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다 썼고, 그것만으로 모자라 전국 교사가 가입한 사회보장병원(ISSSTE)에 매달 2,000만 페소(약 160만 달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임용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는데, 노조비 명목으로 평균 100페소 정도를 교사 월급에서 징수하는데,<sup>2)</sup> 매달 이 돈의 10%가 고스란히 노조위원장의 사치품과 성형수술 비용으로 빨려 들어간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140만에서 160만으로 추산되는(정확한 교사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교사는 전국교원노조를 통해 월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급되는 1%의 노조비 외에도 이 ‘선생님’의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 자명하다.

2) 멕시코의 경우 각 주에 따라 교사 임금에 큰 격차를 보이는데, 매달 급여의 1%에 해당하는 노조비의 경우 멕시코시티가 250페소로 가장 높고 미초아칸 주가 64페소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Excelsior, 2013/02/28, “Elba se embolsa 140 millones al mes: descontaba a cada profesor 100 pesos en promedio”).

미국 샌디에고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던 중 공항에서 체포된 엘바에 대한 뉴스는 공항 체포 이후 구치소로 이감되는 내내 실시간 속보로 보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로하신 ‘선생님’이 두 번이나 혼절하는 바람에 구치소 관계자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는데, 사실 수감 이후 터져 나오는 천문학적 수준의 유용금액에 관한 뉴스를 듣는 국민들이야말로 까무러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2008년이었던가, 갑작스레 마음이 동한다고 각 지역 노조대표에게 자그마치 59대의 허머(hummer)를 사서 선물하려다 사회적 비난에 부딪히자 대당 5만 달러가 넘는 이 차를 경매에 부쳐야 했던 에피소드는 차라리 애교 수준이었던 듯하다.

## 에피소드 2: 교육개혁의 시작

2012년 12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바로 다음 날인 12월 2일에 차풀테펙 성에서 각 당 대표와 함께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éxico)에 서명하였다. 주 내용은 보다 강한 멕시코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핵심적인 부문의 개혁을 언급하였다. 그 중 하나가 ‘교육개혁’이다. 교직의 세습 혹은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개시험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확한 교사와 학생 수를 조사할 수 있는 통계기관과 신규임용 및 직무평가지험을 관장할 교육전문 평가기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에 퇴직하는 부모의 교직이 합법적으로 자식에게 세습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었던 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조차도 멕시코 내 정확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 수를 알 수 없었던 점, 그리고 2011년부터 실시된 각 주별 교사 신규 임용시험에서 80%가 낙제를 하고도 여전히 교사로 임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육개혁을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

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개혁에 전국 교사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할 터, 무엇보다도 멕시코 교원노조의 대표 격인 전국교원노조위원장인 엘바는 교직 세습은 멕시코 교사의 특권이자 기득권이라며 세습 금지 조항을 일언지하에 일축했다. 또한 1979년 전국교원노조에서 갈라져 나와 약 3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는 지역 차이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교사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강제퇴직이 명시된 교육개혁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개혁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책을 내놓은 정부는 2013년 2월 25일 교육개혁의 시작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일사천리로 법안 제출과 심의를 진행시키면서 다음날인 2월 26일 23년간 메머드급 교원노조의 수장이었던 엘바를 체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다음날인 2월 27일 전국 주지사를 소집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주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언제라도 권력위에 영원히 군림할 것 같았던 수장의 체포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교사들에게 엘바의 체포는 내용에 있어 합법적이고 절차에 있어 적법했음을 특별담화 형식으로 알리고, 정부의 칼날은 불법을 저지른 엘바를 향한 것이지 교원노조를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엘바의 체포 이후 검찰이 발표한 수사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 간에 교사의 신규임용뿐 아니라 평가와 승진 그리고 퇴직 후 교직의 세습까지 모든 것을 담당해온 전국교원노조의 회원 중 16만 명은 정부로부터 전국교원노조를 통해 월급은 받지만 그 어느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지 않는 유명교사로 밝혀졌다. 이들 16만 명의 유명교사 중에는 현직 시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전·현직 주지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 수, 특히 장학금 수혜 학생 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일명 허풍학교(escuela

embarazada)도 상당하였다.

그간 160만 교사를 대표해 항상 이름대신 ‘큰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엘바의 상상을 초월하는 소비수준과 속속 드러나는 돈세탁, 거기에 더해진 유명교사와 허풍학교에 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멕시코정부가 의도한 바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였을 것이다. 사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는 엘바의 구속이라는 강경수를 둔 선제공격에서 성공한 듯 했다. 한 차례의 폭풍이 지나가긴 하였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될 것이라 안도했을 것이다. 적어도 8월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 에피소드 3: 헌법광장 점령

2013년 8월 18일, 새 학기 시작을 하루 앞둔 일요일 저녁, 멕시코시티의 심장 헌법광장(Zócalo)에 천막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은 오아하카, 미초아칸, 게레로, 틀락스칼라에서 온 전국교원노조원이었다. 물론 지난 4월부터 교육개혁에 반대하여 소칼로 광장에서 항의성 농성이 있어왔지만, 산발적이었고 소규모였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이네 개 주에서 바로 다음 날인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하였고, 10만 여 명의 교사는 학교가 아닌 수도의 심장 소칼로에서 천막생활을 시작하였다. 소칼로 광장에 천막을 칠 공간이 없어 일부 교사들은 주변 거리에 천막을 쳐야했다. 숙식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전무했지만 임시방편으로 천막화장실을 만들고, 곳곳에서는 풍로를 동원해 취사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시위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신규 교직법에 명시된 교사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규 교직법(Ley General de Servicio Profesional Docente)에 의하면 모든 교사는



2013년 8월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을 가득 메운 천막들  
(이미지 출처: [://www.eluniversal.com.mx](http://www.eluniversal.com.mx))

4년 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마다 한 번씩 총 두 번의 평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세 번째 평가에서도 필요한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엔, 행정직으로 발령을 받든지 퇴직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 평가는 2011년부터 전국교원노조와 정부의 협의 하에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평가 결과가 교사의 근속이나 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난 2년간 평가에서 낙제 점수를 면한 교사는 전체 교사의 25%에 불과했다. 교육개혁으로 인해 2014년부터 실시될 교사 평가의 결과도 지난 2년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수장의 체포 이후 밝혀진 사실에 충격과 배신이 워낙 컸던지 160만 명이 넘는 전국교원노조원은 교육개혁을 위한 입법과정을 그저 지켜볼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멕시코에서도 가장 교육 여건이 열악한 오아하카, 미초아칸, 게레로, 치아파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교육공무원협회는 강력하게

향의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각 주마다 교육여건과 급여가 천차만별인데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평가결과가 근속이나 퇴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8월과 9월이 일 년 중 태풍을 동반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이고, 임시 화장실과 샤워를 사용한 풍로로 취사를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정부 관계자 그 누구도 소칼로광장 점령이 장기전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조직적이었고, 급진적이었고, 장기적이었다.<sup>3)</sup> 매일 멕시코시티의 주요 거리와 상원과 하원 건물 입구를 점거함으로써 교육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와 의결에 매진하던 상·하원 의원들이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회의를 열어야 했다. 또 대통령 관저 입구와 주요 방송국은 물론이고, 수차례 멕시코시티에서 푸에블라와 쿠에르나바카로 나가는 연방고속도로의 요금소까지 점거하는 바람에 수십만 대의 차량이 무료로 요금소를 통과하기도 했다. 교육개혁 법안에 대한 의결이 가까워지면서 전국교육공무원협회 소속 교사의 저항 역시 더욱 거세졌는데,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진입로를 점거하여 4,000여 명이 넘는 탑승객들이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8월 19일 이후 전국교육공무원협회의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멕시코 통상·서비스·관광국은 시위 열흘 만에 피해액이 5억 페소에 달한다고 발표하였고, 9월 5일에 그 액수는 17억 페소로 증가하였다.<sup>4)</sup> 주로 관광의 감소와 전국교육공무원협회 교사들이 진을 친 소

3) 매일 아침 여섯 시 이전에 이들은 지역별로 모여 조회를 하고 출석을 부른 뒤 취사를 한다. 빗물을 받아 세수를 하기도 하지만, 샤워를 해야 할 때는 주변 상가의 공중화장실에서 20페소(약 1.5달러)를 지불하고 5분간 시간을 얻어 해결한다. 이후 지역별로 나뉘어 시위에 나가고, 저녁에 천막으로 돌아와 식사를 해결한다. 순번을 정해 낮과 밤으로 자체 경비를 서기도 한다. 천막 농성이 장기화 되면서 유료화장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유료로 핸드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스가 생기기도 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마르크시즘과 같은 내용을 작은 소책자에 담아 파는 상인들도 등장했다 (Milíneo, 2013/09/03, "Cátedra de un planton: La CNTE en el Zócalo" [http://www.milenio.com/politica/Catedra-planton-CNTE-Zocalo\\_0\\_146985507.html](http://www.milenio.com/politica/Catedra-planton-CNTE-Zocalo_0_146985507.html)).



칼로 주변 상권 피해에 따른 손실이었다. 지속되는 시위로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소칼로 주변 거대시장인 테피토(Tepito) 상인회와 전국교육공무원협회 시위대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취임 1주년을 맞아 9월 1일 일요일에 연례 국정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시위를 우려한 때문에 일요일을 살짝 빚겨 월요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9월 16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매년 소칼로광장에서 이뤄지는 전야제와 당일 군인들의 시가행진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독립기념일 이전에 헌법광장을 되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고, 그 중 하나로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의 급여를 정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서도 전국교육공무원협회의 조직적이고 급진적인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은 채 더욱 거세졌다. 오히려 시위 참여자가 증가하였다. 결국 9월 13일 멕시코 정부는 수천 명의 연방경찰과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위 교사들의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틀 후 겨우 헌법광장 소칼로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소칼로 광장을 내주게 된 전국교육공무원협회 교사들은 삼문화 광장의 혁명기념탑으로 천막을 옮겼다. 9월 중순 교육개혁 관련 법안이 의결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했을 때는 각 주의 전국교원노조 조직원들까지 전국교육공무원협회 시위를 지지하고 또 참여함으로써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 4. 암울한 현실

2013년 현재 멕시코의 평균 교육 연수 8.6년으로, 이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에 해당한다.<sup>5)</sup> 100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중학교

4) Excelsior, 2013/09/05, "CNTE cuenta al D.F. 1,717 millones de pesos", disponible en <http://www.excelsior.com.mx/comunidad/2013/09/05/917377>

까지 마칠 수 있는 아이는 45명에 불과하다. 고등학교를 마치는 경우는 27명이고, 대학까지 마치는 경우는 13명이다. 단 두 명만이 대학원 과정까지 진학한다.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는 월 평균 임금이 4,000달러를 넘어서지만 최종 학력이 중졸일 경우는 월 평균 임금이 400달러를 넘지 못한다.<sup>6)</sup>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1억이 넘는 멕시코 전체 인구 중 2,500만 명은 가구소득을 전부 식량구입에 쓴다 해도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절대빈곤층이다.<sup>7)</sup>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국가 전체 예산의 21%, 국내 총생산의 6.1%가 교육에 투자된다. 라틴 아메리카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교육의 결과는 형편없다. 600만 명의 문맹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 중 44%는 1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다. 최근 20년 사이 중졸 수준의 교육을 마치지 못한 자가 2,970만 명에서 3,340만 명으로 증가했다.<sup>8)</sup> 15세 인구의 56%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 지난 10년 간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 OECD 국가들 중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sup>9)</sup>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모두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2010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펠리페 칼

5) OECE, 2013, "Nota País: panorama de la educación".

6) Juan Carlos Rulfo, 2012, documental "Del Panzazo".

7) La jornada, 2013/02/20, "México, con 3.1 millones de nuevos pobres", disponible en <http://www.jornada.unam.mx/2013/02/20/politica/002n1pol>; Consejo Nacional de Evolución de la Política de Desarrollo Social, 2010, "La pobreza por ingreso en México"; Comisión Nacional de los Salario Mínimo(CONASAMI) 통계자료.

8) El Universal, 2011/01/02, "México con 33 millones en rezago educativo" disponible en <http://www.eluniversal.com.mx/notas/734432.html>; Narro Robles, J. y Moctezuma Navaro, D., 2012, "Analfabetismo en México: una deuda social" en la revista Realidad, Datos y Espacio, Vol.3, No.3.

9) 2000년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는 OECD회원국 27개국 중 27위, 2003년 평가에서는 29개국 중 29위, 2006년 평가에서는 총 30개국 중 30위, 가장 최근이었던 2009년 평가에서는 34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교육개혁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교사들  
(이미지 출처: <http://www.informador.com.mx/>)

데론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나라가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여전히 문제가 많기에, 2013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정부는 다시 교육의 개혁을 주장하고 또 사회적 동의도 얻고 있지만, 수 만 명의 교사가 교실을 등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지 않아도 상습적인 수업 결손이 만연한 이 나라 교육현실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8월 19일 개학 이후 11월 현재까지 단 하루도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3백 만 명을 넘어선다.

대통령조차도 알 수 없는 멕시코 전체 교원 수와 학생 수, 그리고 학교 수. 반대로 이 나라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교사와 허풍학교의 존재. 지역에 따라 최저 5,000페소(약 400달러)에서 최고 32,000페소(약 2,500달러)에 이르는 교원 급여의 극심한 편차. 일단 한 번 권좌에 오르면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교원 노조의 지독한 비민주적 시스템, 제대로 된 교원양성 시스템의 부재, 교육 예산의 93%가 교원노조를 통해 교직원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비정상적 구조, 쓸 만한 컴퓨터는커녕, 교사조차도 없는 시골학교, 교사의 정치적 행사 동원을 수업보다 중요하게 여겨 매년 총 200일의 수업일수 중 110일도 채우지 못하는 상습적 수업 부재의 만연.

위에 열거된 문제점만으로도 멕시코 교육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부실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선하여 오직 교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2013년 멕시코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그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13년 멕시코의 교육개혁이 직면한 상황을 집 한 채로 비유해 본다면, 대들보는 물론이요 집안의 모든 기둥과 벽 구석구석이 썩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 모든 기둥과 벽을 대신해 두 팔로 지붕을 받치고 선 이에게 자꾸만 경쟁력을 더 키우라,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언제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요구하는 형국이 아닐까 싶다.

---

임수진 - 멕시코 콜리마대학교 정치사회과학대학 교수